

발 간 사

반세기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한 결과,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으로 2천년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지원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대북 포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도 했지만, 남북관계가 반세기에 걸친 대결과 갈등의 관계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되어 지금 이시간에도 많은 우리국민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을 관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언론·문화·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4자회담에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에도 있어서도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의 해결과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남북간의 교류협력도 보다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화해협력의 남북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해 우선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 및 미사일개발문제 등 당면 현안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하면서, 세계적인 탈냉전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아직 대남적대노선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국간 회담재개 노력에 호응하여, 지난 2월 ‘남북고위급 정치회담’을 제의해 온 것이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와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지난 해 헌법개정시 가격·원가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경제관료 등을 해외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제·경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대북 포용정책이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백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 추진 목표와 과정, 성과 등을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대북정책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시는 분이나 국민 여러분이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노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9년 3월

통일부장관